

타이틀	03. 이루리, 팀의 휴가일정을 정리하다
배 경	C종합개발(중소 시설관리업체)
등장인물	이루리: 20대 여 정대리: 30대 이루리 사수 한팀장
시놉시스	

샌드위치 데어로 휴일이 끼여 있는 10월 휴가시즌, 본사에서 연차가 반 이상 남은 직원들이 몇 명인지 보고하고 연차가 남은 직원들에게 연차사용을 독려하라는 지시가 내려온다. 이루리는 팀원들 각각 다른 연차 숫자에서 반도 채우지 못한 사람들을 골라 몇 명인지 보고하고 연차사용을 독려하는 메일을 보낸다.

팀장은 팀원들이 휴가일정을 잡을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팀원들의 휴가 일정을 모두 공유할 수 있게 정리하라고 지시하고 이루리는 팀원들의 휴가신청서를 보고 팀원들의 휴가 일정표를 만든다.

이루리는 팀원들이 한번에 알아보기 쉽게 간트차트로 모양을 바꿔 팀장에게 보고한다.

팀장님은 같은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이 모두 자리를 비울 경우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없다며 그 사람들은 휴가를 겹치지 않게 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이루리는 팀 프로젝트 정리표를 보면서 같은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을 분류해 겹치는 사람들이 있는 프로젝트를 알 수 있도록 표를 수정한다.

얼마 후, 프로젝트별로 조정된 휴가신청서가 다시 제출되고 이루리는 이를 보면서 간트차트를 수정하여 같은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이 모두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없는지 다시 확인해 팀장님에게 보고한다. 팀장님은 시스템 설계를 할 수 있는 인력들 중 가장 빨리 업무시작이 가능한 날짜가 언제인지 물어보고 루리는 세 사람의 휴가가 끝나는 날짜와 복귀 후 해야 하는 업무에 필요한 소요시간을 확인해 팀장에게 보고한다.

대 본

#1 타이틀 : 이루리, 팀의 휴가일정을 정리하다.

#2 회의실

정대리 옆에 앉아 열심히 필기하는 이루리. 여러 명이 모여 있는 회의실. 한팀장이 화이트보드에 일정표를 적어놓고 무언가 의논 중이다.

한팀 아 그리고... (공문 보며) 여름 휴가 쓰는 사람 많죠? 휴가계들 빨리빨리 올리세요. 특히 연차 반 이상 남은 직원들 있죠?

한팀장이 둘러보면 나인가 싶어 가웃가웃하는 직원들 머리.

한팀 (웃으며) 와~ 자기 연차가 얼마 남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바쁘긴 바쁘구나! 정대리, 우리 기술팀 12명 중에서 연차 반 이상 남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많으면 독려 해야지.

정 네. 보고는 이루리씨가 해도 될까요?

한팀 맞다. 정대리 곧 휴가지. 결혼준비 잘 하시고요. 이루리씨도 정대리 걱정 안하게 인수인계 잘 받으시고.

루리 네.

#3 이루리 자리

정대리가 연차휴가 관리대장을 보는 법을 알려주고 있다. 화면에 연차휴가 관리표가 보여지며

정 이게 기술팀 연차현황표예요. 여기 연차일수가 있죠? 이 사용일수 합계가 전체 연차일수의 반이 안 되는 사람들을 찾으시면 돼요.

루리 아 네...

정 그리고 한팀장님 메일로 몇 명인지 보내시고요. 참고로 이 표도 첨부하시고요.
루리 네.

정대리 가고 모니터에 띄워진 관리표 관찰하는 이루리

루리 (눈을 가늘게 뜨고 보며) 아, 알았다. 전체 연차일수의 1/2보다 사용일수가 작은 경우를 찾으면 되는 거네.

이루리가 미사용 일수가 사용일수 합보다 큰 사람들을 표에서 다른 색으로 체크한다. (화면으로 보여지는)

루리 와~ 9명? 반도 못 쓰신 분들이 진짜 많네. 빨리 팀장님께 보내드려야겠다. (잠깐 생각한 후에) 정대리님도 참조해야겠구나.

메일 보내려고 컴퓨터 클릭클릭하는 루리

#3 복도

이루리가 커피 가지고 오는데 땡땡 소리와 함께 대화방이 열린다.

(한팀) (대화방 말풍선, 음성과 함께 보임) 우리 팀 연차사용 반도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은데 어찌죠?

루리 응? 팀장님이 나한테 물어보시는 건가? 뭐라고 하지? (당황해서 들고 있던 커피 창틀에 내려 놓으며 핸드폰 보고 고민하는)

(정) (땡땡 소리 나며 말풍선 새로 올라오고, 정대리 음성과 함께) 독려 차원에서 휴가일정공유표를 만들어서 공지할까요? 서로 휴가일정을 알면 아무래도 참고할 수 있으니까요.

루리 아, 그룹대화구나. 깜짝 놀랐네...

(한팀) (말풍선 땡땡, 목소리와 함께) 일단 그렇게 해주세요.

(정) (말풍선+목소리) 루리씨가 지금까지 나온 기술팀 휴가일정을 정리해서 여기 올려주세요.

루리 (핸드폰으로 답) 네. (루리 말풍선 땡땡 올라오고)

(정) 네, 정리표는 이 대화방에 올려주세요.

루리 (핸드폰 손으로 짚으며) 냐.

#4 이루리 자리

기술팀원 휴가계를 보며 표로 정리하고 있는 이루리

루리 (휴가계 보고 옮겨 적느라 고개가 확확 돌아가고) 이 분은 10일부터 12일 총 3일... 끝!
잠시 후 대화방 화면에 땡땡 올라오는 루리의 <기술팀 휴가일정표.xls> 파일

루리 (말풍선 올라오며, 목소리와 함께) 기술팀 휴가일정표 정리했습니다.

(한팀) (말풍선과 목소리) 휴가계 안 낸 사람이 다섯이나 되네! 이거 빨리 공유해 주세요.

(정) (말풍선과 목소리) 네. 루리씨 이거 간트차트로 바꿔서 보내주세요.

루리 간트차트?

썩썩하게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이루리

루리 아, 이렇게 간트차트구나. 이렇게 일정을 보면 확실히 더 편하겠네! (대화창에 쓰면서) 네. 바로 바꾸겠습니다. (말풍선 땡땡 올라오고)

잠시 후, 어느새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밖. 집중하고 있던 루리가 마침내 고개를 들고

루리 아, 다 됐다. 간트차트!

대화방에 땡땡 루리의 말풍선과 첨부파일 <기술팀 휴가일정표_간트.xls> 이 올라온다.

루리 간트차트로 바꿨습니다.

(정) (말풍선+목소리) 잘 하셨네요. 이걸 기술팀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루리 네

(한팀) (말풍선+목소리) 잠깐요. 이거 같은 담당회사끼리 묶어서 보면 좋겠는데요. 같은 회사 담당 중에서 최소한 한 명은 남아 있어야 고객사에서 긴급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대응이 되요. 고객사 기술관리 히스토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고객사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한팀장이 보낸 파일이 올라온다. <기술팀 인력투입 현황.xls>

(한팀) (말풍선+목소리) 제가 보낸 파일 참고해서 담당이 같은 사람들끼리 묶어주세요. 같은 회사 담당들은 서로 협의해서 누구 하나는 남아있을 수 있도록 휴가 날짜를 정했으면 좋겠네요.

루리 (표 다운받아서 보며 답변 쓰는) 여기에서 담당회사가 같은 사람들끼리 분류해서 보이게 하면 되는 건가요? (말풍선 땡땡 올라오고)

(한팀) (말풍선+목소리) 네. 네 담당회사별로요.

루리 알겠습니다. 아직 휴가계를 제출하지 않은 분은 그냥 비워놓을게요.

(한팀) (말풍선+목소리) 네.

(정) (말풍선+목소리) 그리고 같은 담당 중에서 모두 자리를 비우는 날이 있는지도 확인해 주세요.

루리 (말풍선과 함께) 네

다시 양쪽 표 비교하는 이루리

루리 같은 담당이면 같은 번호랑 색으로 모아놔야겠다.

이루리의 클릭에 따라 칸칸이 색이 바뀌는 표가 화면에 보여진다. 잠시 후, 색깔별로 다시 짝 정리된 일정표 차트가 완성된다.

루리 같은 담당끼리 모아 놓으니 더 보기 좋구나. 여기서 담당이 모두 자리를 비우는 날이 있는지 찾으라고? (가우똥하며 표 보다가 휴가날짜가 모두 겹쳐지는 칸을 찾는다.) 아~ 휴가날짜가 모두 겹쳐지는 날은 아무도 없었구나!

같은 담당인 같은 색 중에서 휴가 날짜가 모두 겹쳐지는 날이 점선으로 표시되어 화면에 보여진다. 또 그런 날을 찾아 열심히 표를 보는 이루리 모습. 잠시 후, 땡땡 소리와 함께 대화방에 올라오는 새로운 일정표 차트 파일

루리 (말풍선, 목소리) 담당별로 분류했습니다. 확인해보니 C빌딩 담당분들이 모두 자리를 비우는 날이 있습니다.

(한팀) 아, C빌딩 건물은 시작일이 좀 늦어서 그럴 거예요. 시작일 확인해 주세요. 시작일보다 앞에 비우는 건 상관없으니.

화면에 입력투입표와 휴가일정표가 동시에 뜬다.

루리 (문서 확인하고) C빌딩 시작일은 8월 5일이구나. 그러니까 그 날짜 이후로 휴가가 겹치는지 확인하면 되겠네.

인력투입표의 C빌딩 시작일이 반짝 반짝하면서 휴가일정표의 같은 날에도 줄이 짝욱 그어진다.

루리 (말풍선, 목소리) 다시 보니 시작일 이후에 휴가가 모두 겹치는 날은 없습니다.

(한팀) (말풍선, 목소리) 오케

(정) (말풍선, 목소리) 그럼 이렇게 게시판에 게시하고 같은 담당 안에서는 일정에 무리가 없도록 잘 의논해 휴가계를 올려달라고 하겠습니다.

(한팀) (말풍선, 목소리) 넵.

(정) (말풍선, 목소리) 루리씨가 올려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한팀) (말풍선, 목소리) 고생했어요.

루리 (말풍선, 목소리) 넵^^

루리 그럼 이제 게시판에 공지를 올려야겠구나. 제목은 뭐라고 하지? (고민하며) 이 공지의 목적은 일단 휴가일정 공유를 통한 휴가 독려, 그리고 같은 담당회사 안에서는 모두가 자리를 비우는 일이 없도록 일정 협의. 이 두 가지인 거니까... 제목은<기술팀 여름휴가 일정 공유>라고 해야겠다.

열심히 작업하는 이루리의 모습

잠시 후 땡땡 소리와 함께 게시판에 올린 글이 화면에 보여진다.
